

X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승효상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1952년 10월 부산 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1975년)

신학, 미술전공은 부모님의 반대로, 누나의 권유로 건축을 전공하게 되었다. 고3때 신학을 전공하려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이 독실하신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것에 대한 사춘기적 갈등인 셈이었는데, 그 덕에 일찍부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 비행학생이었지요. 다만 신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다가, 건축과는 잘 알지 못하는 분야였고, 화가가 되려 미술대학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장남으로 집안도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미술대학 졸업해서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좋아하는 누님이 건축과 가라고 권해서 건축과에 가게 된 겁니다. 누님이 권하는 한 무엇을 권유해도 그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막상 건축과에서는 건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

건축과에 가보니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할 것이 없었지요. 건축에 관해 가르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군부독재의 정국이 하도 어수선할 때인데 제가 한 일은 데모대 앞장 서서 독재타도를 외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데모에 열중하고 학교는 휴교상태의 연속

데모하다가 잡혀도 가곤 했지만, 건축은 배우지 못한 채, 술한 데모 때문에 학교는 늘 휴교하기 바쁘고, 가끔 선배들하고 이야기하다보면 귀동냥으로 듣는 것이 건축에 관한 전부였습니다.

조교선생에게서 꼬르뫼제와 칸을 알게 됨

손재주가 있다는 소문이 나서 선배들에게 불려가서 그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 1학년을 보냈습니다. 학년말에 공대학생 회장하던 분이 고교선배인데 마침 건축과 선배이기도 하지요. 그 형이 너는 이제 데모하지 말고 건축공부 하라고 진지하게 말해주더군요. 늘 대장처럼 섬기던 선배가 그렇게 말하니 그때부터 건축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상 2학년 본과수업 시작 시 첫 강의를 '거룩하게' 들었는데, 건축은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 제도는 무일 사라고 말하는 통에 실망이 이만 저만 아니었고 이런 학교는 다시는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지요.

수업은 듣지 않고 밖으로만 빙빙 돌면서도, 건축은 알고 싶어 원서가 즐비한 미국공보원에 가서 건축에 관련된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교 조교로 계시던 김국영 선생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건축공부에 관한 지도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시거나, 꼬르뫼제, 루이스칸 등 대가의 작업을 트레이닝지에 그려보라고 권유받는 등, 그 당시 제게 필요한 특별한 수업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지요.

이마 수업을 나가지 않았으니 정상적으로는 졸업이 불가능한 것인데 휴교가 하도 많았던 시절이라 그냥 졸업은 한 셈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불안정한 사국이 졸업을 시켜준 셈이지요.

김희춘 선생의 소개로 김수근 선생 제자로 들어가다

운명은 저도 모르게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졸업 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대학 4학년 때 선배사무실을 잠깐 나가면서 미국유학을 갈까 고민 중인데, 학교의 마지막 수업시간을 기념처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김희춘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다 진로를 물어보시는데 저에게만 물어보시지 않다가(잠깐 좌절했지요), 수업마치면서 저더러 내 방으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짜고짜 "자네는 김수근한테 가지 그래" 하시는 겁니다. 황망스러워 엉거주춤하는 사이 즉석에서 김수근 선생께 전화하시더니 "학생하나 보낼 테니 써주게나" 부탁하시는 겁니다. 엉겁결에 저의 진로가 결정된 겁니다. 그때가 1974년 12월이었습니다.

공간에서 두 번의 탈출

공간연구소에 들어가서 15년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에 김수근 선생을 피해 두 번 도망갔지요. 한번은 1978년도에 마산성당 설계를 마친 후 국제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1년 동안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월급은 많이 받아 온갖 허세를 다 부리며 다녔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1년 만에 공간으로 복귀한 셈이지요.

두 번째는 1980년 야만적 광주민주항쟁을 보고, 이 땅에서 건축하며 사는 것이 최악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도피하게 됩니다. 유학시험을 볼 필요도 없고 비자 받을 필요도 없는 복잡한 절차가 없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과대학으로 1980년 8월에 떠났습니다. 돌아올 기약은 그 필요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혼자 떠날 작정이었는데 떠나기 한 달 전에 집사람을 만나게 되어 갑자기 약혼하고 가게 되었지요.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년 후 1982년도에 공간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외국에 가보니 김선생의 건축을 아직도 덜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

국내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외국에 가니 내가 아직도 김수근 선생에 대해 덜 배운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김선생 건축이 더 궁금해진 것이지요. 외국 것을 알면 알수록 비교가 되고 건축의 본질에 대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제게 김수근 선생은 확실한 스승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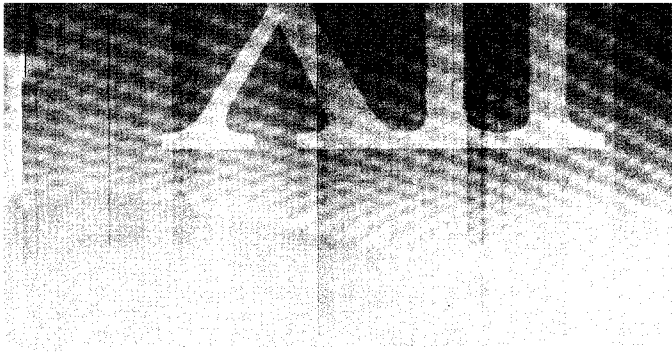
공간에서의 작업

공간에서 한 작업 중 기억나는 것은 1977년 마산성당입니다. 책임을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한번 이탈하였고 다시 돌아온 후, 1979년에 청주박물관과 경동교회(1979~1980)의 설계를 마치고 착공하는 것까지 보고 오스트리아로 유학간 것입니다.

공간의 침체기에 복귀

유학 마치고 1982년도에 공간으로 복귀하고 보니 사무실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후에 지난 정권에서 일하던 분들을 배척하는 정치적 분위기가 그런지 정부 일도 못하고 프로젝트도 많이 줄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당시 주미대사관저를 담당했을 때인데 김선생이 병으로 아프게 되시



조각가 부랑쿠시가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해
 천신만고 끝에 친구의 도움으로 파리에 가서 방을 얻었는데
 방에 표어를 붙여놓았습니다.
 건축사를 지망하는 건축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처럼 창조하고 왕처럼 명령하고 노예처럼 일하라”
 저는 이 말을 건축사의 창조력과 직능에 대한 자존적 자부,
 그리고 그를 위한 치열한 삶에 대한 경구로 삼고 있습니다.

고 사무실이 침체기로 접어든 셈이지요, 결국 김선생은 1986년에 돌아갔습니다.

지방법원 당선은 궤도일탈의 소산

1983년도에 서울법원청사 설계경기가 있었는데 사무실이 어려울 때라 제 생각에는 무조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일념에 참가를 말리시는 김선생을 설득하여 우겨서 제출하였고 결국 당선은 되었습니다. 제가 당선될 안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김선생께서 1985년도에 병을 얻으시고 사무실은 어렵고 하니 구조조정 한다는 둥 어수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소장제로 자율 운영한다고 제도도 바꾸고 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사무실을 공릉으로 옮기고 했지요. 저는 김선생 돌아가시면 공간시대도 끝나고, 나도 독립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공간의 대표가 되다

그런데 1986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는데, 김선생을 장세양 선생과 같이 문병 드리러 갔더니 돌이서 공간을 지켜달라고 유언처럼 말을 하시는데 거예요. 그리고 선생은 한 달 후인 6월 14일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의 2년

당시 제게 건축사 면허가 있어 법적으로 제가 대표가 되었는데 받은 것은 빚 30억 원이었지요.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빚쟁이가 된 것이지요. 은행과 사채업자, 임금체불로 직원들이 소송을 하지 않나 노동부에 불려 다니지를 않나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2년이 지나니 견딜만해졌습니다.

공릉의 땅과 사옥도 처분하여 악성 빚도 갚고 해서, 맷집도 생겼지만 사무실 사정은 꽤 나아졌습니다. 마침 장세양 선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저는 독립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요.

이로재라는 이름으로 독립

그래서 1989년 독립하였습니다. 작년 말이 20주년 되는 해라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개업 전에 공간사의 생활이 어려움에 대한 압박이 심한 것도 독립의 이유가 되겠지만, 더 분명한 것은 김선생 사후에 공간 작업들이 내 건축인지 김선생님 건축인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누군가 작품에 대한 퀄리티를 물어올 때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작업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김선생의 이름을 들먹거리는데 것이 도리어 김선생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거지요.

승효상 건축은 무엇인지 제자신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 대단한 욕구가 밀려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끊고, 아무가진 것도 없이 대학로에 방을 얻어(89년 12월 27일) 시작한 거지요.

기슴속에 두려운 것도 있었지만 다시 나의 이름으로 건축한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지나온 과정들이 오히려 눈물 나도록 고마운 기분도 들었습니다.

수졸당이 첫 번째 프로젝트

제 이름을 걸고 시작한 일들 중 공간에서부터 계속했던 일들을 제외하고는, 민자의 미학이라는 화두를 내걸며 작업한 수졸당(1992년)이 첫 프로젝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수백당(1999년) 등이 시작 때의 일입니다. 그 후로는 웰시티(2000년), 혜화문화관(2002년) 그 다음 일이 중국에 진출해 첫 번째 프로젝트인 장성주거단지(2002년), 다소 큰 규모로는 휴맥스(2005), 파주출판단지 코디네이터(1999~2009년), 중국 차호웨이소호(5만명, 2008년), 현재 진행 중인 일로 말레이시아 재개발사업인 복합건물인 샌틀디투(15,000명) 등이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하다

2000년 중국에 초청받았는데 중국 최고의 부동산 개발회사인 소호차이나입니다. CEO는 장신이라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아시아건축사 12명을 초청해서 만리장성 인근에 빌라를 짓는 것입니다. 장영호라는 중국건축사에게 지문을 구한 결과 그중에 제가 포함된 거지요. 저는 클럽하우스를 맡았지요. 그 후로도 소호차이나사와 좋은 관계로 프로젝트를 계속 받아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중국 땅에 한국건축사 집을 지은 것이 아마도 단군 이래 처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기는 1994년에 오사카에서 열린 IAA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장영호라는 중국건축사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 후로 친해졌습니다. 중국은 개인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들이 필요하여 초청받지 않으면 힘들지요.

중국 프로젝트 이후 세계로 진출하다

그 이후로는 세계 여기저기에 일을 하게 됩니다. 아부다비에 새로 신도시 짓는데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매니지하고 있는 것에 계획설계(2007년)를 제출하고 진행 중입니다. 아부다비 시내에는 거리, 장누벨, 자하 하디드, 다다오 안도 등 메이저급 건축사들이 박물관을 설계하고 비엔날레 전시관이 20개정되는데 저도 포함되어 전시관 설계를 맡은 거지요. 도시 전체는 2016년 혹은 2018년에 완성됩니다. 그 외에도 미국과 일본에도 일이 있지요.

김수근 선생의 영향

김선생의 건축작업의 어휘는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것이고 김선생 본인의 건축사적 태도, 건축하는 방법, 삶 등 모든 것들이 제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축에 관한 기본적인 토대의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 집중해야 되는지, 김선생은 대단한 카리스마를 소유한 분인데 그런 카리스마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저는 김선생님과 많이 부딪쳤습니다. 다른 직원보다 유난히 많이 부딪힌 셈입니다.

나의 건축이 김수근 선생의 건축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공간에서 나와서 제 건축을 한다고 할 때 막았했습니다. 김수근 건축 말고는 다른 건축은 하나도 몰랐으니까요. 4, 3그룹에 참여해서 활동하게 된 것도 다른 건축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지

-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양대학교 건축과 및 동대학 산업대학원 졸업
-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 대학건축사협회 건축사지 편찬위원회 위원장



실로 오랜만에 건축사 승효상을 만나게 되었다. 같은 공간출신이라도 나는 근무한 횟수에 따라 김수근 선생을 안다고 생각하는 분량이 다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것처럼 영리한 건축사가 무려 15년을 김선생 밑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김수근 선생의 잠재력이 컸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오늘날 그의 건축의 바탕 저 밑에 김수근 선생의 건축이 깔려있고, 그 위에 승효상의 건축이 다져져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실제로 이제는 꽤 유명한 건축사가 되어 매스컴 특히 신문에서는 심심치 않게 그의 글을 읽을 기회가 있다. 처음에는 그저 잘나가는 건축사에 대한 질시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유명세를 타는 건축사가 좀 더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래야 건축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인터뷰 다음날 급히 미국으로 떠나는 그의 바쁜 발걸음이 그의 현재를 웅변으로 말해준다.

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성인이 된 다음에는 이미 길러진 것들이 고착화 되어 있어 아무리 김수근 건축에 대한 교육을 받아도 근본적으로 다른 까닭이, 원래 각 인간의 타고나고 길러진 성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전자적 성질도 다르고 그 당시 교육내용도 제가 받은 것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니까 어릴 때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릴 때 환경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철저한 기독교적 분위기에서 자라났지요. 즉 성경의 교리나, 칼비니즘의 원칙, 대소 요리문답 등 저의 정신적 바탕을 이룬 것들이 기억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저의 토대였던 것이지요.

유명한 건축사보다는 좋은 건축사가 되고 싶다

유명해졌다는 것은 허울이고 그래서 그런 말이 거북스럽습니다. 유명한 건축사가 반드시 좋은 건축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해지기는 쉽지만 좋은 건축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백남준 선생이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한 것은 타고난 실력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겠지만, 제 경우는 다릅니다.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게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지요.

한번은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반대편에 아주 예쁜 여자가 있어 쳐다보고 있자니 갑자기 일어나서 제게 오기에 저는 항의하러 오는 줄 알았는데, 사인을 해달라고 한 일이 있어 당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한 것은 없다

명해지기 위해 노력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매스컴에 글 쓰는 것은 일반국민들의 건축계몽차원에서 쓰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거꾸로 제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이겠지요. 건축인들이 보는 건축잡지 보다는 대중잡지에 글 쓰는 기회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도 100살까지 건축을 하고 싶다

건축사의 비전이라는 것이 지난 프로젝트에서 저지른 실수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브라질의 오스카 니마이어는 나이가 103살인데 98세 때 다시 결혼하고 그러면서 아직도 실무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신은 더없이 행복한 삶이겠지요.

좌우명? 그런 단편성을 별로 좋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경사무실은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져있기도 하고 자주 가 볼 수도 없어 민경식씨가 북경 이로재 대표입니다. 제게 보다 많은 기회를 던져 줄 수 있는 사람이지요.

내부지향적인 한국건축계

너무 내부지향적입니다. 요즘시대는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호해지는 건데 IMF때 국가가 개인을 살려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연대를 통해 직능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하는 일이란 직능이 아니라 직업의 연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테면 건축사들이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 개인이 홍보 못하잖아요. 이럴 때 단체에서 개인 혹은 일부 집단을 홍보해주고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래의 기능이 정지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은 직업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과는 달라야하는데 학회도 마찬가지구요.

단체의 통합은 필요

경계를 허물어야지요. 저는 그런 단체들 근처에도 잘 안 가지만 통합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통합해서 직능에 관한 논의하고 꼭해야만 할 건축적 행위가 많습니다. 국가가 건축에 관한 개념이 없으니 개인사무소의 생존은 각자의 문제지만, 예를 들어 한국건축의 담론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것도 그런 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건축사의 해외진출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 기회만 있으면 한국건축사들 잘 소개시키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됩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축단체가 세계유명도시에서 한국건축사 순회전시회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제일 문제 되는것이 출판에 관한 것인데, 일본건축이 출판으로 세계시장에 일본건축의 정보를 뿌린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국에도 건축잡지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서점에 가면 한국건축서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한국 책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협회 같은 곳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정부

양극화현상은 정부의 잘못이지요. 텀키다 피규 심사다 해서 그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데 한탄스럽습니다. 지난정부 때도 이걸 없애달라고 권력 핵심부에 말해도 먹이사슬이 워낙 강해서 아마도 근세기 내에는 해결될 기미가 안보입니다.

대형회사(Big Firm)에서 조금 윤리의식이나 한국의 건축 발전에 대한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일만 쫓아가는 형국이라면 결국 공멸하고 말겠지요.

작은 사무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중간규모 사무실이 없어진다는 거라서 건축 설계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없는 풍토가 걱정 아닐까요.

대형조직은 작품성을 논하고 소형사무실은 작가성을 논하고 이런 형세가 점점 심해지겠지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부입니다.

부랑쿠시의 표어를 가슴에 품다

조각가 부랑쿠시가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해서 천신만고 끝에 친구의 도움으로 파리에 가서 방을 얻었는데, 방에 표어를 붙여놓았습니다. 건축사를 지망하는 건축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처럼 창조하고 왕처럼 명령하고 노예처럼 일하라”

저는 이 말을 건축사의 창조력과 직능에 대한 자존적 자부, 그리고 그를 위한 치열한 삶에 대한 경구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직원 30명과 북경지사에 5명 있는데, 30명은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 매출액? 모르긴 하지만, 일인 당 1억 이상은 해야 사무실이 유지가 된다고 말은 듣고 있습니다. ■